

5·18조사위, 활동종료 당일에도 “검토중”만 남발

26일 4년여간 조사 활동 공식 종료 “회의 중..의결 여부 등 공개 못해” 유족 “미진한 조사 실망스러워” 5월 단체 “소통 매우 미흡해” 분통 “국가차원조사 계속돼야” 한목소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조사위)가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해 여전히 ‘검토중’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유족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사활동을 지켜 본 유족들은 미진한 조사와 소통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26일 조사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6개월간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그간 5·18 21개 직권조사 과제를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최초 발표와 집단 발표 책임자 및 경위를 비롯해 △행방불명자의 신원 및 소재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떤 과제가 진실규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로 불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이날 오후까지도 ‘회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늦은 밤까지 회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몇 건이 의결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며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보도 자료나 최종 보고회 같은 형식으로 공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서 개최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 토론회에서 21개 직권조사 중 7건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7건은 민간인 사망 △민간인상해 △행방불명자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군에 의한 헬기 사격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검거 간첩 홍중수·손성모의 5·18 관련성 여부 등이다. 이 중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유일하게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유족들이 접수한 신청 사건은 216건 중 43건이 심의 완료됐으며 80건이 직권조사 병합, 93건이 각하 또는 취하됐다.

조사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 전부의 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미지수다.

진상규명 안된 과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권고사항으로 조사하길 바란다는 식의 언급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 등 관련 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조사위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어떤 내용이 조

사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며 “법적으로 활동 종료 직후인 27일까지 조사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조사위의 설명에 따라 여태까지 유족들은 기다릴 뿐이었다. 조사위는 활동이 종료, 정리되는 대로 유족과 국민들에게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기대와 달리 자료 공개 시기는 불투명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자료 공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27일) 공개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흡한 조사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책임자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건 유족들에겐 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실망스럽다”며 “조사위가 해산되면 자칫 이대로 진실이 묻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월정신지킴이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위 활동은) 실망스럽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발표 책임자만이라도 특정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진전된 결과를 기대했지만 반

기별 조사활동보고서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맹탕’인 것 같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시민과 유족 등과 소통했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 날까지 명확한 발표가 없는 걸 보면 추후 보고서도 기한 내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활동 기간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안된 과제는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5·18현안,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현안,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양배 기자**

50대父 흥기 살해 혐의 20대 아들 검거

순천경찰, 긴급체포 조사

크리스마스당일에 자신의 아버지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아버지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준속살해)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순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50대 B씨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음식점에 들렀다가 손에 피를 묻힌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주 들르던 식당(분식) 주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했고 식당 점주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투자 사기’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보성서 체포

보성경찰, 특가법 사기혐의

경찰이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 씨 부친 전창수(60)씨를 붙잡았다.

26일 보성경찰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전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

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신원을 숨겼고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씨는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남 서북경찰서에 공개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전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6억원가량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보성경찰은 침입 절도 사건의 기초 조사만 마치고 나서 전씨의 신병을 전남 서북경찰서에 인계했다.

전씨와 별개로 수습역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딸 전청조(27)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